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득은 물질적 풍요와 주관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불충분한 소득은 빈곤한 삶을 초래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소득은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가구를 선별하거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생활필수품의 구매가 제한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 여부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의 한계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소득의 측정만으로는 실제 생활에서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시되어 왔다.

(나) 한 개인의 역량이란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조합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능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자존감을 갖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득의 결여는 개인의 역량을 박탈하는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소득이나 부는 역량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소득이 많지만 정치적 참여 기회가 제한된 사람은 일상적 의미에서 빈곤하지 않아도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가난하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궁핍할 수 있다.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해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질 기회는 없어도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다.

(다) 2022년 실시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혼자 밥을 먹는(‘혼밥’) 횟수는 평균 4.5회로 2020년보다 증가했고 혼밥을 자주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단백질은 물론 채소류와 과일류를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혼밥의 이유로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69.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 1] (가)에 기술된 소득의 중요성과 (나)에 기술된 역량의 중요성을 각각 적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를 설명하시오.

[문제 2] 실업 상태의 개인에게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할 때,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문항해설	[문제 1] 최근 사회조사 결과는 ‘혼밥’이 늘고 있고,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에 더 많으며, 혼밥하는 이들은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가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조사에서 관찰된 현상을 소득 중심 접근과 역량 관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함. [문제 2] 실업 상태의 사람에게 실업수당과 같이 소득을 보조하는 방식의 사회적 개입을 실행한다고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가)에서의 소득의 중요성과 (나)에서의 역량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함.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함. 소득의 중요성과 역량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능력, 자료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함. [문제 2] 소득의 중요성과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이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의 장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함.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사회·문화 현상, 사회 불평등 양상, 통합적 관점, 행복의 조건, 실업 문제, 복지 제도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14-21, 30-37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10-17, 26-35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14-17, 26-39쪽
 이진석, 《통합사회》, 지학사, 12-19, 28-37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12-17, 24-3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13-14, 150-153, 154-165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10-13, 151-154, 155-165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12-14, 155-157, 158-169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12-14, 154-157, 158-169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11-13, 144-147, 148-16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119-122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105-108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114-117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109-112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108-111쪽

[기타]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Books, 2000
 김선엽 외,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